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법제화”

5·18 기념식 제창 배제·방해는 이명박·박근혜 거부감 때문
당시 보훈처, 기념곡 지정 막기 위해 의도적 방해 활동 했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행사 식순에서 배제됐으며 제창 방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기사 3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이하 재발방지위)는 11일 보수정권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조적적 저지(본보 10월 11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서울지방법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보훈처 위법행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발방지위는 “5·18 민주화운동 제29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다”면서 “이 노래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제28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5·18의 노래 제창 경우 보고에 따른 BH 반응)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방지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의 제창을 막고, 기념곡 지정까지 막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재 재발방지위는 ‘보훈처의 의도적 방해’의 근거로 ▲31주년 행사부터 ‘임을 위

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준비한 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수렴해 이종 반대의견만을 내세우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소수로부터 자문을 받은 점 ▲보수 언론에 반대 광고를 사전에 계획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승춘 처장 재임 시절 독립유공자에 대한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재발방지위는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는 매우 실적을 보고토록 했으나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편향된 업무를 추진했다”면서 “2016년 5월 29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참전유공자는 2만8000여명이 등록했고 독립유공자는 4명만 직권등록한 것

도 편향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재발방지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기념사업회의 교육 내용 중에 사회주의 계열 인물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몽양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 지원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황룡강 노란꽃 잔치 11일 장성 황룡강 일대에 만개한 꽃들 사이로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황룡강 일대에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노란꽃잔치’가 열린다. >관련기사 11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출산 절벽 전남, 출산 정책 역행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부모에 떠넘겨

서울 빼고 전국서 가장 높아

■ 만 3세 기준 2018년 시도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내역

(단위: 원)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서울	105,000	105,000
부산	73,000	73,000
대구	65,000	71,000
인천	84,000	84,000
광주	62,000	78,000
대전	72,000	72,000
울산	71,000	87,000
세종	59,000	60,000
경기	82,000	85,000
강원	66,000	79,000
충북	66,000	73,000
충남	77,000	87,000
전북	67,000	67,000
전남	84,000	98,000
경북	64,000	69,000
경남	67,000	83,000
제주	57,000	73,000

<자료:최도자 의원실>

전남지역 부모의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가 이해단체인 전남보육시설연합회 요구를 수용, 차액보육료를 대폭 인상한 때문이다. 지자체가 앞장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보육료 부담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등 출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에 따르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에는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만 3세를 기준으로 전남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월 8만4000원, 가정어린이집 월 9만8000원이다. 이는 민간-가정 모두 10만5000원인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광주는 각각 6만2000원-7만8000원이며, 제주 5만7000원-7만3000원이다. 전남학부모는 제주학부모보다 월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씩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전남의 차액보육료가 높은 이유는 올해 1월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해

단체인 전남보육시설연합회 요구를 수용, 보육료를 대폭 인상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육시설연합회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감소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최저인건비 인상을(16.9%)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을 요구했고, 전남도보육정책위는 이를 수용했다.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출산 절벽에 빠진 전남도가 출산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보육료 부담을 부모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일시 ▶ 2018. 10. 21(일) 08:0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10-3610-4706

대촌중학교
총동문회장 남순복

기온 ‘뚝’ ... 쌀쌀한 가을

광주 10월 초 아침 기온 7년만에 10도 이하로 떨어져

7년 만에 광주의 10월(1-11일)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섭씨 8.8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지역에 대륙고기압이 발달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4~7도 가량 낮은 쌀쌀한 가을날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구례 성삼재 2.1

도, 화순 2.7도, 곡성 4.3도, 보성 4.4도, 광주 8.8도를 기록했다. 광주에서 10월 초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1년 10월 8일 9.9도 이후 7년만이다.

기상청은 12일과 13일 아침 최저기온도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특히 복사냉각에 의해 11일보다 1~2도 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추위는 한반도 상층에 제트기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 구름 한점 없는 청명한 상태에서 태양 등으로부터 받은 대기복사열이 대기중으로 방출되면서 지표면이 냉각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히려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서는 이불을 덮은 것처럼 지상에 있는 열이 구름에 차단돼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면서 “이번 추위는 전형적인 가을날씨 패턴으로, 겨울이 되기 전까지 상층에 한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당분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일보

프랑스 과거사 청산에서 배운다 ▶6면
신 팔도유람 - 전북 문화체전 ▶18면
KIA 한승혁 “더 큰 도전 하고싶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래!

일시: 10월 21일(일) 9:30~
장소: 모교 운동장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노동일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1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2t), 복합회합용도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